

첫 졸업생 마이스터高 ‘성공신화’

마이스터고교인 광주자동화설비공고와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가 올해 첫 마이스터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들 학교는 ‘취업률 100% 신화’로 ‘신(新)고졸시대’를 열고 있다. 독일 글로벌기업인

‘KHS’에 취업한 광주자동화설비공고 문진선(20)군과 KBS의 취업 프로젝트인 ‘스카우트’를 통해 당당히 한솔CSN에 입사한 한국항만물류고 신민기(20)군의 신고졸시대 희망기를 들어봤다.

“독일회사 입사... 신고졸시대 열 것” “세계적 물류전문가 꿈 펼치겠다”

■ 광주 자동화설비공고 문진선 군

“나만의 스펙을 쌓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독일의 글로벌 기업에 취업, 고졸 신화를 쓴 광주자동화설비공고 문진선(20)군의 ‘마이스터 생활신조’다.

문 군은 독일 자동화설비기업인 KHS에서 3개월간의 인턴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돌아왔다. “대학 나온 애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아 KHS의 정식 직원이 됐다. 그는 14일 졸업식을 한 뒤 3월 독일로 떠난다.

중학교 상위권이었다던 문 군은 남들과 똑같은 생활이 싫어 인문계고교 대신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다. 특기와 흥미를 살려 자신을 발전시키겠다는 설계였다.

이론과 실습, 여학 공부로 3년이 손살같이 지났다. 생산자동화기사 등 자격증 3개를 취득하고, 모바일로보틱스 지방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 2학년 때 국제교



문진선 군은 독일 자동화설비기업인 KHS에서 3개월간의 인턴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돌아왔다. “대학 나온 애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아 KHS의 정식 직원이 됐다. 그는 14일 졸업식을 한 뒤 3월 독일로 떠난다.

■ 광양 한국항만물류고 신민기 군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문가가 돼 국제물류 분야에서 급부상을 이루겠다.”

광양에 있는 마이스터고인 한국항만물류고를 다니다 모 방송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CSN(한솔그룹 물류회사)에 입사가 확정된 신민기(19)군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익힌다는 열정으로 노력해 주어진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인 신 군은 어릴 적 물류를 쓰고 여수항을 드나드는 배들을 보며 이를 컨트론했다는 욕망이 생겼고, 주위의 추천으로 마이스터고를 입학해 지금에 이르렀다.

신 군은 “마이스터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준데 대해 감사하며,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민기 군은 어릴 적 물류를 쓰고 여수항을 드나드는 배들을 보며 이를 컨트론했다는 욕망이 생겼고, 주위의 추천으로 마이스터고를 입학해 지금에 이르렀다. 신 군은 “마이스터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준데 대해 감사하며,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수위 ‘공약재원 135조’ 고수... 지방공약은?

민간연구소는 270조 추산... 정확한 재원 분석 없어 후순위 가능성 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등 소요재원 규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재원 135조’를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선 공약 개발에서 세밀한 분석을 거쳐 소요재원을 추계했다”면서 “재원이 추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35조원으로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각 부처의 관계자는 전문가들만 이 경우 공약이 항목별로 시행되거나 규모를 놓고 완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약을 발표할 때 정확한 재

원이 추산되지 않았던 지방공약은 후순위로 대폭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간·국책연구소 등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최소 27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추계치(135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당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있어서만 박 당선인 측은 1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3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약은 시기조절이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복지공약은 사실상 수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소

득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법복무기간 3개월(21개월→18개월) 단축도 불투명한 안보상황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각 지방의 중요 공약사업도 임기 초반 시작되지 못한 채 임기 말에나 논의되기 시작할 경우 논란만 일으키면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약은 무조건 이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이행시기와 지원규모 등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배운태 전남도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 두 번째)가 6일 박근혜 당선인이 농촌발전의 모범사례로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 나주 세지면 화담마을을 방문해 고성혁 나주부시장과 함께 한우직판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 부회장에 본사 신항락 주간



송희영 회장 신항락 부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을, 부회장에 신항락 광주일보 논설주간 등 12명을 선출했다. 협회는 또 이날 총회에서 감사 2명, 이사 18명 등 임원들도 선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적자 눈덩이... 농작물재해보험 좌초위기

작년 3535억 손실... 보험사 기피 “정부 부담 늘려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확대를 약속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태풍, 한파 등에 대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보험료 1375억원을 거둬들였지만 보험금은 무려 4910억원을 지급, 적자가 353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은 357%에 이른다.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이 잇따라 몰아쳐 농작물 피해가 컸던 탓이다. 이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한다. 손해율 100~180%

사이의 손실은 NH농협손해보와 다른 재보험사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180% 이상은 정부가 감당한다.

지난해 민간 보험사들의 손실은 1000억원 가량이다. 재보험사들은 이런 구조로는 사업을 더 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참여를 꺼린다. 이들이 재보험을 거부하면 농협 혼자서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 기금마저 바닥나 지난해 수준의 재해가 닥치면 농협 손실은 1000억원을 넘게 된다. 민간 보험사들은 손해율 150% 이상의 손실은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달까지 민간 보험사들과 농어업재해보험 약정을 맺어야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사업 시작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강조하는 등 이를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연필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 외국인 단체관광객 급증

여수박람회 효과... 올해 순천정원박람회 기대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효과로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단체관광객(5인 이상이 숙박한 경우)수는 1만2531명이었다. 이는 2011년 외국인 단체관광객 수 8458명보다 48.2%(4073명)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497명(59.8%)으로 가장 많고, 미국 1079명(8.6%), 일본 1046명(8.3%), 싱가포르 735명(5.9%), 홍콩 264명(2.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급증

은 5~8월 열린 여수엑스포를 방문하면서 광주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광주에서 숙박을 방문한 외국인 단체관광객(5인 이상이 숙박한 경우)수는 1만2531명이었다. 이는 2011년 외국인 단체관광객 수 8458명보다 48.2%(4073명) 증가한 것이다.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민속박물관, 향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을 둘러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올해도 순천정원박람회 효과로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U대회 수영장 설계심의

남양건설 컨소시엄 1위

광주시는 6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장 건설 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한 결과,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100점을 받아 91.25점과 76.97점을 각각 받은 성지건설 컨소시엄과 우신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1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지분 45%)은 대전중흥건설(20%), 우미산업개발(14%), 삼한건설(14%), 영진건설(7%)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가격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정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에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용하는 노후 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수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저미두수 대개!

경천동지할 비술(천문 저미두수)로 수십년을 요절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할,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담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꿈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품간 연출 석 · 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분철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 · 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문의 전화 062-385-0723
Sthe1 요리학원 금호파출소 건너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관남로

대현명 구.한미쇼핑 근처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바로 옆으로 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진/외/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11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11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광-269호